

HD현대, 조선·정유 중심 실적 개선… 3분기 영업이익 71.5% ↑

연결기준 매출 22조, 영업이익 2.9조
조선 부문 고부가 선박 매출 확대
HD현대오일뱅크 영업이익 371% ↑

HD현대가 조선과 정유를 중심으로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렸다.

HD현대는 28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2조800억원, 영업이익 2조919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2%, 영업이익은 71.5% 증가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환율 변동에도 조선 부문의 고부가가치 선박 매출 확대와 정유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매출 8조2862억원, 영업이익 1조44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3%, 37.3% 증가했다. 고선가 선박의 매출반영 확대와 생산성 향상, 엔진기계·해양플랜트 부문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HD현대오일뱅크는 매출 10조437억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야드 전경.

/HD현대중공업

원, 영업이익 90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0%, 371.2% 증가했다. 정유·유회기유 사업이 수익성을 유지한 반면 석유화학 사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적자 전환했다.

다만 HD현대오일뱅크의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0.6% 감소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축소된 영향이다. 회사는 원

유 수급과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장 운영에 주력할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마켓(AM)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 6501억원, 영업이익 95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 2.2% 증가했다. 인수합병(M&A)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가운데 글로벌 엔진 정비기업 골텐스 인수를 통해 AM 사업 경쟁력을 강화

할 방침이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회복과 산업 발전기용 엔진 사업 성장에 힘입어 매출 2조1756억원, 영업이익 20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9.8% 증가했다. 향후 군산 엔진 신공장을 통해 발전용 엔진 생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 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로 매출 1조1799억원, 영업이익 28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15.1% 늘었다. 전력기기와 배전기기의 통합 공급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HD현대 관계자는 “조선, 건설기계, 에너지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삼성전기, AIDC 수혜… 분기 매출·영업이익 신기록

AIDC용 고부가제품 공급 확대
매출 3.7조, 영업이익 6910억

삼성전기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부품 수요 확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기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7633억원, 영업이익 691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65%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9%, 영업이익은 57% 늘었다. 같은 기간 세전이익은 6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4687억원으로 113% 늘었다.

이번 실적은 AI 데이터센터용 적층세라믹파워머티리얼(MLCC)과 반도체 패키징 기판(FCBGA) 등 고부가 제품 공급 확대가 이끌었다. 글로벌 전기차(EV)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사업 부문별로 보면 컴포넌트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1조8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서버·네트워크·파워 등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전 응용처에서 매출이 확대됐다.

특히 AI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MLCC의 고용량화와 초소형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GPU와 무연반도체(ASIC)당 필요한 MLCC 정전용량이 매

년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을 ‘AIMLCC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가 MLCC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패키지솔루션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9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전 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와 AI 가속기, 네트워크용 데이터센터 관련 고부가 FCBGA 공급 확대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자율주행용 고성능 기판 판매 증가가 성장을 견인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3분기 매출은 9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지만 전 분기보다는 9% 감소했다. 2억 화소 풀디즈럼 카메라 모듈 신규 양산과 폴더블 스마트폰용 제품 공급 확대,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 증가 등이 전년 대비 매출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기는 4분기에도 AI 데이터센터용 고사양 부품 수요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따른 전장용 부품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컴포넌트 사업부는 소형·초고용량 MLCC 등 AI용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차세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앞당길 계획이다. 주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대응하는 한편, 전기차(xEV)와 ADAS용 초고용량·고압 MLCC 등 고부가 제품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패키지솔루션 사업부는 서버 CPU와 AI 가속기용 고부가 FCBGA 신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능력을 적기에 증설해 고객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광학솔루션 사업부는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고화질·슬림 카메라 모듈 양산에 나선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차세대 플랫폼용 카메라 모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참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연료전지부터 자동 충전, 차량 관계까지 상용 모빌리티 전반의 기술력을 선보인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수소 상용차의 운행 효율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버스·트럭 시승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의 실용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WHE 2026)’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수소 산업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통합한 박람회로, 11개국 19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에서 상용차 운행 환경에 맞춰 내구성을 개선한 수소 연료전지시스템을 처음 공개한다. 장시간·장거리 운행과 고중량 적재가 잦은 상용차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로, 수소 상용차의 안정적인 운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전기차 자동충전 로봇을 활용해 청소트럭에 수소를 충전하는 과정을 처음 시연한다. 24시간 무인 충전을 통해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충전소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는 기대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차량 운행 현황과 주요 부품 상태,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관제 솔루션 ‘블루링크 엡타임 케어’도 전시한다.

현대차그룹은 관람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현재 개발 중인 일렉시티 수소전기 저상 광역버스를 공개하고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저상 구조와 실내 공간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유네버스 수소전기버스 상품성 개선 모델과 더 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시승 프로그램을 통해 수소 상용차의 주행감도 경험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운행·정비·충전을 아우르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을 강조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사 첫날에는 글로벌 수소 산업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도 열려 수소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와 국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내구성을 개선한 상용 수소 연료전지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수소 충전 자동화 기술을 통해 운행, 정비, 충전 등 전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라며 “수소 상용차가 실제 운송 현장에서 신뢰받는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국내에서 수소 상용차 3755대를 판매했으며, 수소전기버스 보급 대수는 3500대를 넘어섰다. 국내 수소전기차 시장은 2018년 백소 출시를 계기로 승용차 중심의 시장을 형성한 뒤 정부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차로 영역을 확대해 왔다.

/양성운 기자 ysn@

포스코

‘하이렉스’ 상용화 박차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원료·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하이렉스(HyREX)’ 상용화 기반 강화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 19~2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와 포항제철소에서 ‘하이렉스 R&D 파트너십 컨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잘츠기터, BHP, 리오티토, 포테스큐, 발레 등 글로벌 기업과 린데, 엑스모빌, 에어리퀴드, 지멘스에너지, 뉴캐슬 등 연구기관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동환원 기술 개발과 파일럿 전기용융로(Pilot ESF) 연구 현황과 하이렉스 공정 전체의 연속 운전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모 플랜트의 설계·건설 현황도 소개했다.

파트너사들은 탄소저감 경로와 직접환원철(DRI) 전기용융 기술, 수소 활용 및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 기술 등을 논의했다.

/양성운 기자

SK온

‘UL 9540A’ 평가 충족

SK온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강화된 대형화재 시험 기준을 충족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SK온은 자사 ESS가 대형 화재 시험(LSFT) 평가를 완료하고 북미 ESS 화재 안전성 시험 표준인 ‘UL 9540A’ 평가 항목을 충족했다고 28일 밝혔다.

UL 9540A는 배터리 열폭주 시 열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 표준이다. 이 가운데 대형 화재 시험은 실제 ESS 화재 상황을 재현해 인접 컨테이너로의 화재 확산 여부 등을 검증한다.

이번 시험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ESS 컨테이너의 옆로 인접 컨테이너 내부 배터리 셀에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았다. 컨테이너 내부 온도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SK온은 이번 UL 시험성적서 획득을 계기로 글로벌 ESS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